

배포 일시	2022. 9. 5.(월)	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관 자동차정책과	책임자	과 장 심지영 (044-201-3835)
		담당자	사무관 김 혁 (044-201-3850)
			주무관 허동혁 (044-201-3853)
보도일시	2022년 9월 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5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교통부-美도로교통안전국(NHTSA) 제8차 「한·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」 개최

- ◆ **韓**, 배터리 사전인증제도 도입 등 **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**과 C-ITS 실증 및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**자율주행차 정책 현황 발표**
- ◆ **美**, 도로교통안전국의 자동차 **제작결함조사 및 리콜 현황**, **신차 평가제도(US NCAP)의 평가체계 및 항목 개선 방안 등 발표**
- ◆ **전기차 안전성**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추가, **수소차 내압용기 성능 요건 확대 등 국제기준 반영을 위한 양국의 협력강화 의지도 다져**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자동차정책관 주재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(이하, NHTSA)과 9.6.(화)~9.7(수) 이틀간 제8차 한·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.
 - 한·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는 기술 규정 개발·개정, 리콜, 신차평가 등 자동차안전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로, `14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회의에 이어 8년 만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.
 - 이번 회의를 통해 한·미 양국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기술발전 등 지난 8년간 자동차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미래자동차 정책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가게 된다.
- 첫날 제1부에서 한국은 ‘미래차 안전관리 방안’을 발표하고, 미국은 NHTSA의 일반적인 현황,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제도, 사후관리 방안 (제작결함·리콜)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.

- 제2부에서 한국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노력 및 C-ITS 실증·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을 소개한다.
 - 양국은 자동차의 지속적인 첨단화를 고려한 신차평가제도*의 첨단안전장치 평가항목 및 평가비중 확대 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.
 - * 신차평가제도(NCAP, **N**ew **C**ar **A**ssesment **P**rogram) : 법적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실시하고,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제작사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
- 제3부에서는 ‘자동차 제작결함 및 리콜 현황’을 주제로 전기차와 첨단안전장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결함·리콜 양상을 공유하고,
 - 마지막 제4부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 안전강화를 위해 국제기준 마련에 공동 협력하고, 명확한 제작결함 확인을 위한 조사 기법을 공유하는 등 향후 한·미 양국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.
- 제8차 한·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 한국 수석대표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“`14년 이후 8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한·미 양국이 전기차와 수소차의 안전강화 등 자동차 안전 분야의 정책 현안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”라며,
 - “앞으로도 양국이 우호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국제무대에서 공동으로 협력하기를 기대”한다고 덧붙였다.